

남구, 신·구도심 엇갈린 표심...북구, 무주공산에 후보 난립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높은 행정력 앞세워 3선 도전
황경아·김용집 풍부한 정치 경험 장점
인물경쟁력·조직력이 당락 가를 변수



김병내



김용집



박기수



하상용



황경아

장, 환경복지위원장 등을 거쳐 합리적 행정각각과 포용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남구의 숙원인 봉선동·진월동 개발, 대촌동 구도심 활성화

를 위한 균형정책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하상용(64) 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경제 현안을 중심에 둔 경영형 후보로 부상했다. 향토 대형유통기업 빅마트 대표를 비롯해 광주재능기부센터 이사장, 전라도닷컴 발행인 등을 지내며 사회적경제와 청년창업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는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이 곧 복지”를 강조하며 민간 감각을 기반으로 한 행정 효율화를 내세운다. 정당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경제통이라는 점과 신선함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조국혁신당 박기수(60) 남구지역위원장은 개혁 이미지를 앞세워 ‘대안 후보’로 나선다. TBN교통방송 사장, 남구문화예술회관 관장, 안병하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을 지낸 그는 언론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강점을 갖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남구에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남구에서 줄곧 활동해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남구청장 선거의 승부처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의제 균형이다. 봉선·진월 등 인구 밀집 지역은 교통·교육·주거 정비의 속도를, 대촌·송하 등 구도심은 생활 인프라와 지역 연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표심이 미묘하게 엇갈린 가운데, 인물 경쟁력과 조직력, 정책 비전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청장

현역 부재 속 각계 인사 앞다퉈 출마 준비
전·현직 광주시의회 의장 줄줄이 출사표
민주 경선룰·연합구도 따라 표심 변화



강백룡



김대원



김동찬



문상필



송승중



신수정

내년 6월 치러질 광주 북구청장 선거가 현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광주시장 출마로 ‘무주공산’ 구도를 맞으면서 내년 북구청장 선거는 다양한 후보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역 부재 속에 ‘다자 난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북구의회 의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찬(60)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오래전부터 구청장 출마 준비를 위해 물밑 행보를 해오면서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다. 북구의회와 광주시의회 등 20여년의 오래된 지방의정 경험과 함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을 지내면서 지역 경제계와 원만한 대외관계가 강점으로 꼽힌다.

신수정(여·52) 현 광주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위해 발빠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34년 만의 첫 여성 의장, 구의원 3선·시의원 재선 등 풀뿌리 정치 경험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현장 중심의 복지시설 확충·주민 민원 해결과 여성·교육·청년 정책 조례제정에 힘썼다.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은 재선 광주시의원을 지냈고, 중앙당 부대변인과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정책 설문조사 등 주민 소통·민원 해결에 앞장섰다. 앞선 북구청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역에서 줄곧 와신상담을 해오며 조직을 갖추는 등 내년 구청장 선거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중(67) 한국상수도협회 사무총장은 광주시장 대중교통과장, 투자유치 사무소장,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변인 등 4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 분야 현장 경험이 강점이다. 북구 지역 행사와 골목을 돌며 지역밀착형 행정이 이미지를 키우고 있으며, 오랜 공직 생활에서 얻은 조직 혁신 및 직원 화합 능력, 도시개발·환경·복지 분야 해법 제시로 신뢰를 쌓고 있다.

이은방(63)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북구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의장 등 다양한 지방의정 경험을 보유했다. 12년간 북구와 광주에서 풀뿌리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광역·기초의원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조호권(65) 전 시의회 의장은 금융계 출신으로 광주시회서비스원장·민주당 광주시장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실물경제와 지방행정 경험을 토대로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폭넓은 의정·행정 경험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대원(54) 전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위 부의장은 정책기획 전문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상권활성화, 교통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아권에서는 국민의힘 강백룡(66) 전 북구 부구청장이 유일한 도전자다.
민주당 경선판의 1차 변수는 경선룰과 권리당원 표심이다. 의정당 중량감과 관료·당직·시민사회 후보군이 혼재해 연합 구도에 따라 표의 흐름이 급변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 천일염 우수성·가치 입증

전남도, 소금박람회서 호평 받아

전남도는 20일 “2025 소금박람회 ‘짭! 소금 페스티벌’을 통해 전남 천일염의 세계화 가능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간간이 빛은 전남의 품격, K-SALT’를 주제로 소금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린 축제 형식 행사로, 천일염의 우수성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람회는 전시·체험·미식·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채워졌다. 유명 셰프인 이원일씨가 유자 메이플 소금 팬케이크 쿠킹쇼를 선보였고, 역사강사인 최태성씨가 ‘역사 속 소금 이야기’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박람회장 안에 마련된 ‘K-SALT관’은 천일염의 가치와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보는 전시로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천일염 이력제를 소개하고, 영랑·신안 등 지역별 홍보관을 운영해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오늘 미국서 투자설명회

전남도가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전남도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IR은 전남도의 투자환경과 스타트업 육성계획,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LA지역 한인 경제계와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전남의 투자환경 및 산업 인프라와 첨단산업 및 K-푸드·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 육성계획,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제도 등 소개를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병행해,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전남도는 또 LA지역 한인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식품·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대한민국의 청정환 환경과 산업단지,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갖춘 투자 최적지”며 “이번 LA 투자설명회를 통해 현지 기업과 투자자에게 전남의 강점을 알리고,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평가 라운지

주종섭, 고용노동부에 여수산단 고용위기 해결 건의서 전달

“여수 ‘고용위기지역’ 재지정해야”

전남도의회가 고용노동부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고용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민주·여수6)은 지난 19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 행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수국가산업단지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해 최근 6개월간 3900여명의 근로자가 감소했고, 석유화학산업 종사자만 5100명 줄었다”며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여수를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이 본격화되면 고용 충격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곧 민심이고 노동 현장의 위기가 지역 전체로 번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후속 조치를 검토해 달라”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여수가 다시 고용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한국전력의 최우선 가치는 작업자의 안전입니다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기에
한국전력은 혁신적인 안전경영을 통해
작업자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전력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